

운동중 발생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최소 절개 봉합술
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근배 · 박유복 · 최 진 · 김병수

서 론

운동중 발생하는 급성 아킬레스 건 파열은 임상에서 흔히 보는 질환으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과 개방적 또는 경피적 봉합술 등이 이용되고 있다. 치료 방법의 선택 시 환자의 특성 및 술자의 경험,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, 저자들은 개방적 술식과 경피적 술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최소 절개 봉합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및방법

아킬레스건 파열로 진단되어 Achillon®을 이용한 최소 절개 봉합술을 시행하였던 10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4(25~68)세, 평균 추시 기간은 9(6~12)개월이었다. 손상원인은 배구 2예, 테니스 2예, 등산 2예, 농구 2예, 권투 1예, 축구 1예 였으며, 수상일로부터 수술까지는 평균 3일이 소요되었다. 수술 직후 족저 굴곡 하에 단하지 석고 고정을 약 3주간 시행한 후 중립위 단하지 석고 고정을 추가로 2내지 3주간 시행하였다. 그 후 석고를 풀고 클렌작 보조기하에 보행을 허락하였으며, 지속적인 관절 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술 후 8주째부터는 인지 기능 강화 운동을 함께 시작하였다. 결과는 환자의 만족도 및 수술 반흔의 길이, 입원기간, 미국족부정형외과(AOFAS)의 족근관절-후족부 점수,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.

결 과

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10명중 8명은 매우 만족, 나머지 2명은 만족의 결과를 보였다. 반흔의 길이는 평균 2 Cm(1.5~3)이었고 평균 입원기간은 2일 이었으며, 족근관절-후족부 점수는 평균 97점을 보였다. 술 후 감염이나 재파열,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. 모든 환자는 술후 약 2개월에 이전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으로 복귀하였으며 3개월째에 조깅등의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였다.

결 론

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최소 절개 봉합술은 최소 침습적 술식으로써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, 빠른 건의 치료로 조기 재활운동이 가능하여 정상 생활 및 운동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며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유용한 수술방법이라 생각된다